

광주 교통사고 사망 1위 오명 벗었다

전국 11위로 '뚝' ... 전남은 전국 최고

선진교통문화운동 성과 뚜렷

광주에 '교통사고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었다.

25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09년 교통안전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8년보다 26명이 감소한 114명으로, 차량 1만대당 사망자 수는 2.31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차량 1만대당 사망자 수는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5번째로 낮았다.

광주는 지난 2008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건수가 156대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최근 4년간 '교통사고 1위'를 기록했다.

광주는 특히 2008년 대비 1만대당 사망자 수가 1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개선 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에서 1년 사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지난해 6월 출범한 '광주 선진교통문화범시민운동본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 민·관·군이 적극 참여한 것이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전남은 전국 16개 광역자치

단체 중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전년보다 14명 많은 497명이 교통사고로 숨져 차량 1만대 당 사망자 수가 7.2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만대 당 사망자 수가 가장 낮은 서울시(1.7명)보다 4.3배 많고, 전국 평균(2.31명)보다는 3배



"방역은 이렇게" 광주축산농협(조합장 안명수)은 25일 오전 광주시 동구 학동 사무실에서 '가축질병 방역단' 발대식을 연 뒤, 방역 시연회를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상 높은 것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다.

교통사고로 지난해 35명이 숨진 목포는 인구 30만명 미만 도시 가운데 2008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75%)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16명이 숨진 완도는 30만명 미만 군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77.8%)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2008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각각 5천838명과 5천820명이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등 1시간만 끄시다"

내일 오후 8시30분부터 '지구 시간 행사'

광주 공공시설 등 참여

오는 27일 오후 8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광주지역 공공시설과 기업체 등이 일제히 전등과 간판을 소등한다.

광주시는 25일 "시와 각 자치구가 청사 등 관련 시설을 소등하는 지구촌 1시간 절전 끄기 캠페인 '지구 시간 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시간 동안 전남대는 교내 가로등과 단과대, 광주교대는 정문과 본관 조명, 교내 가로등 등을 끄 행사에 참여하고, 지역 기업인 오비맥주(주) 광주공장은 생산시설을 제외한 공장 전체와 야외 광고판을 소등한다. 광주시 서구 양동에 위치한 지역 내 최고높이 빌딩 금호생명 건물도 27층 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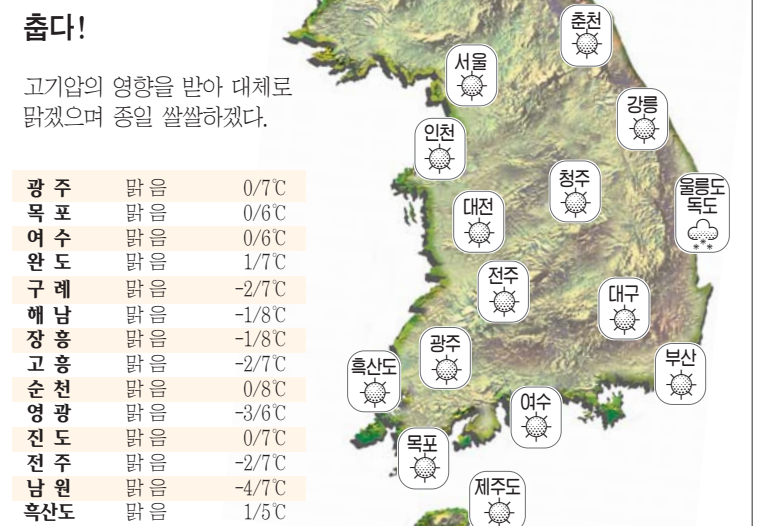
를 제외한 건물 전체의 조명을 끄기로 했다.

또 27일 전남대 기후변화동아리 '그린 액션'은 광주시 북구 용봉동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에서 밀랍초 만들기, 환경 영상 보기, 캔들나이트와 언플러그 공연 등 이벤트를 갖는다. 시민단체인 광주 녹색교통운동과 광주시 서구 풍암동 아이숲 도서관도 별도의 지구시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지구시간(Earth Hour)' 행사에는 120개 국가가 참가하고 세계문화유산인 자금섬, 트레비분수,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터키의 보스포러스 브릿지, 도쿄타워 등 세계 명소들도 소등에 참여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26분 해질 18시 49분 달돋이 14시 30분 달질 03시 40분



출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으며 중일 쌀쌀하겠다.
광주	맑음 0/7℃
목포	맑음 0/6℃
여수	맑음 0/6℃
완도	맑음 1/7℃
구례	맑음 -2/7℃
해남	맑음 -1/8℃
장흥	맑음 -1/8℃
고흥	맑음 -2/7℃
순천	맑음 0/8℃
영광	맑음 -3/6℃
진도	맑음 0/7℃
전주	맑음 -2/7℃
남원	맑음 -4/7℃
목성도	맑음 1/5℃

〈오전〉 바다	중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	보통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	관심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	보통	관심

〈오후〉 바다	중랑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목포	11:10 03:50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여수	23:24 16:54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여수	06:26 12:39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여수	18:43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7(토)	28(일)	29(월)	30(화)	31(수)	4/1(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1/12	2/12	1/14	3/16	6/14	10/14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

멸종위기 식물 9종 서식처 발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8~2009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393개 섬 중 42곳을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식물 9종의 서식처를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식물은 멸종위기종 1급인 풍란과 2급인 끈끈이귀개, 지네발란, 애기둥, 황근, 대홍란, 자주뽕귀개, 박달묵서, 으름난초 등이다.

그러나 남부 도서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1급 한란과 나도풍란은 이번 조사에서 발견되

지 않았다.

이번에 서식이 확인된 생물종은 식물 1천629종, 동물 2천789종, 고등균류 128종, 담수조류 213종 등 4천759종으로, 이는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32%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공단은 전했다.

한편, 환경부가 국가생물자원보전을 위해 지정한 멸종위기식물은 총 64종이며, 이 중 남해안 도서지역에서 살아가는 난온대성 식물은 20종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호 태풍 '오마이스' 발생 우리나라 영향 여부 주목

2010년 제1호 태풍 '오마이스(Omais)'가 지난 24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1천35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고 기상청

이 25일 밝혔다.

이 태풍은 중심 최저기압이 998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풍속은 초당 18m의 소형으로, 시속 22km로 서북서진하고 있다.

오마이스는 28일 새벽 마닐라 동북동쪽 약 1천110km 해상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도로점거 시위 교통방해죄 합헌

헌법재판소는 25일 도로 교통을 방해한 집회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는 손괴나 불통을 일으키는 방법을 사용해 의도적으로 교통장애를 일으키거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교육비리 예방·근절 고강도 감찰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비리 사전 예방과 근절을 위해 6월 지방선거전까지 고강도 감찰활동에 나선다.

시 교육청은 오는 29일부터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 30명

전원을 12개 상시 감찰반으로 구성, 산하 전 기관과 모든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감찰에 나선 계획이다.

공직기강 감찰은 물론 교육비리 취약분야인 인사, 교육기자재 납품, 각종 시설공사 등이 중점 대상이다. 학부모와 학생이 부담하는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 수학여행, 학교급식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암행감찰을 펼 계획이다.

감찰 활동 효과를 높이고자 각급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지방선거 이후로 전면 연기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유영근 감사담당관은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되면 지위가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